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50,4-7

화답송 | 시편 22(21),8-9.17-18 19.23-24(◎ 2가)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애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마태 26,14-27.66

영성체송 |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가 | 입당 따름노래(성가대) 예물준비 216(215)
 영성체 169(168) 파견 123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생미사 지향

- 김영희 클라라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 김기례 레지나의 건강을 위하여
 -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에게 자비를 청하며
 - 장혜윤 크리스티나와 어머니 박혜화 도미니카
 - 정유진 콘솔시아 아버지 정웅배 영육간 건강
 - 이웅희 신부님, 안 마리루시 수녀님
 - 박혜화 도미니카, Christina 가족 영육 평화
 - 배의남, 배쏘피아 가족 회복

- 강호영, 김순자 영육간 평화
 - 안선정 마리안나 가족
 - 김상길 베드로
 - 김춘화 카타리나
 - 김남희 아나다시아
 - 김승범 프란치스코
 - 김승한 어거스틴, 김태희 래아 영육 건강
 - 서원석 요셉 축일 축하
 - 한국에 있는 박지영 크리스티나 빠른 쾌유
 - 김영덕 유스티나
 - 이왕철 프란치스코의 성가정
 - 박연옥 엘리자벳, 김옥지 아가다 영육 건강
 - 최미양 마르티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3월 29일	국민준	민완준	박성현	박성현	김중선 정다경 진서윤	한서희 최예준 김수현 이예진 허우현 김민서
4월 4일	김유화	정은철	민덕미	민덕미	이영혜 백이백 김중선	한서희 최예준 김수현 이예진 허우현 김민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 공동 십자가의 길**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3/29(주일) (8:50AM)	꾸리아	봉사자 4명 : 십자가 1, 주송1, 초2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6년 성주간 전례 안내

3/29	주님 수난 성지주일 (Palm Sunday)	AM. 09:15
4/2	주님 만찬 성 목요일 (Thursday of Holy Week) *미국 본당과 합동 미사	PM. 7:00
4/3	주님 수난 성 금요일 (Good Friday of the Lord's Passion)	PM. 7:00
4/4	파스카 성야 (Easter Vigil)	PM. 8:00
4/5	주님 부활 대축일 (Easter)	AM. 09:15

- 4/2(목) 주님만찬성목요일
: 만찬미사 후 수난감실 앞에서 공동조배가 있습니다.
- 4/3(금) 주님수난성금요일
: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4/4(토)-4/6(월)까지 고해성사 없습니다.

부활 꽃 봉헌

부활절에 본당에서 사용할 꽃 봉헌하실 분 신청 받습니다.
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또는 재무데스크)

부활절 봄맞이 도서 · 성물 Sale

도서부에서 부활절 봄맞이 세일을 합니다. 영성생활에 도움 되는 도서와 성물들을 할인 판매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현금 거래만 가능합니다.)

2026년 주일학교 신앙캠프

주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일시: 5월 2일~3일 (1박 2일)

장소: Autocamp Catskill

대상: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들과 가족들

참가비: \$50 per child, \$100 per adult

접수마감: 3월 31일까지

문의: 858-345-0307 (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2026년 어린이 첫영성체반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초2학년 이상의 초등학생
(접수 시 주일학교 등록 필수)

교리 일정: 4/12, 4/19, 5/10, 5/31(담당: Fr. 루카 OFM)

시간/장소: 11:30AM-12:30PM, 오피스동 3층 컨퍼런스룸

첫영성체: 6월 7일(주일) 성체성형대축일 미사 중

신청: 917-514-0488 (학부모회 회장 김혜미 레오나)

2026년 제41차 여성 꾸르실료 피정

날짜: 2026년 4월 16일(목)-19일(일), 3박 4일

장소: 뉴튼 수도원(St. Paul's Abbey)

주관: 미동북부 한인 꾸르실료 사무국

문의: 347-707-0305(간사 윤복흥 요한)

2026년 제82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일시: 2026년 5월 15일 오후 7시 - 17일 오후 5시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289 US 206. Newton, NJ 07860

문의 및 신청: 646-322-3484

장철순 스테파노 & 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

Cheolsoon@gmail.com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5/17(주일) 특강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

오늘의 말씀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태 27,54)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1764-1801)



윤지헌 프란치스코는 1764년 전라도 진산에서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주교 서적을 오래 탐독한 끝에 신앙을 받아들였고, 형 윤지충 바오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791년에 형이 순교하자 고향을 떠나 가족들과 전라도 고산의 운동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천주교에 입교시켰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윤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나, "평소에 좋아하던 천주교 교리를 끊지 못하였고, 고질병처럼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니, 오로지 만 번 죽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당 지옥의 이치를 굳게 믿은 탓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는 의금부에서 마지막 문초를 받은 뒤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였으며, 다시 전주로 이송되어 1801년 10월 24일 에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75, 가해, 2026. 03. 29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말씀의 이삭

‘리액션’이 준비돼 있으신가요?

최영인 아녜스 | SBS 스튜디오 프리즘 자문·PD



10년 전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마음 정리를 하고자 간 길이었습니니다. 함께 길을 걷던 신부님께서 뭔가 지향을 두고 걸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나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신부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올해 안에 첫 영성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들은 당시 대학 1학년, 유아세례 후 거의 냉담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10월. 두 달밖에 안 남은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겠다 싶었지만 그냥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기적처럼 그해, 아들이 첫 영성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뻐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한 아들이 아니었기에 아이 마음을 바꾸는 건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그 지향이 정말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나누며 즐겼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제게 또 변화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30년 일한 정든 SBS를 나오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했지만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던 퇴사 6일차에 갑자기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성당에서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니! 너무 놀라고 또 기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초부터 성실한 신앙생활을 결심하며 지향한 바가 있었습니다.(10년 전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겪고도 세월이 흘러 기억은 희미해지고 전 다시 게으른 신자가 됐거든요.) 바로 ‘첫 영성체만 받고 또 여전한(냉담자) 우리 아들이 주님을 가까이하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10년 전 산티아고 일도 떠올랐고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안에 살짝 남았던 자그마한 앙금까지 획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저에게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일이 너의 지금 상황을 상쇄할 만큼 좋은 일이야?” 당연했습니다. 정말로 그건 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기에 더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별로 열심히 기도한 거 같지도 않은데...

왜 이리 잘 들어주실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해석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능 피디로 35년 일한 저는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느님께서도 뭘 듯이 좋아하는 리액션을 보는 게 즐거우셨던 거 아닐까?’ 그래서 더 빨리 기도를 들어 주신 게 아닐까?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하. 그러나 저는 외쳐봅니다. ‘충분히 만족’하는 ‘리액션’이 준비돼 있으신가요? 리액션이 준비돼 있을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림 애설

중경 하나 || 환호의 대열에 섰던 사람들과 불목의 대열에서 웅크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물려 다니는 부화뇌동 사이를 뚫고, 그 다음의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깨어 있는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붉고 푸른 아우성이 뼈라처럼 뒹구는 신작로를 지나, 고요한 내 일상의 삶터로 성지를 옮겨 갑니다. 바라볼 때마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어올 이 성지를!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06호, 2026년 3월 29일(가해)